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소개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이하 미교협)는 사회변화를 위한 전국적인 움직임 건설이라는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코리안 아메리칸의 삶의 질 향상과 정치력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 - 로스 앤젤레스 민족학교(KRC, 이하 민족학교), 시카고 한인교육문화마당집(KRCC, 마당집), 뉴욕 청년 학교(YKASEC, 이하 청년학교) - 에 의해 199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미교협과 가입단체들은 전체적인 정치력 신장모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강고하고 독창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이에(?) 가입단체들은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 봉사, 문화, 사회참여, 조직에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입단체들의 활동과 함께 미교협은 견고하고 세련된 정책 목표를 개발하고, 관련 교육자료를 제작하며, 전국적인 전략 수립에 참여함으로써 전국적 풀뿌리 캠페인을 조직하여 지역 단체들이 지도력을 발휘하여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래로, 미교협과 가입단체는 저소득층 세금보고, 크레딧 교육, 법률 상담, 시민권 취득, 번역 및 통역 서비스 등 지역 구성원들에게 꾸준히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교협과 가입단체는 2006년에만 12,200명에게, 2007년 6월 15일까지 5,000명에게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그 외에도 어린이와 연장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의료권의 프로그램, 시민사회 참여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쉽 그룹 등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교협과 가입단체들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기록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언론 보도를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각 가입단체들은 각 지역에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고, 때때 지역 언론을 비롯한 전국 언론, 한인 언론 및 각종 타민족 언론에서 수천건의 관련 기사가 게재되고 있습니다.

미교협은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소수민족과 소외된 계층의 민권과 인권을 위해 나아감으로써, 언젠가 미국에 사는 모든 이들이 평등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미교협에 대한 말, 말, 말!

"미교협은 아시아 태평양계 아메리칸 커뮤니티에서 검증된 지도자이다. 그들은 이민자들이 미국사회에 동화되는 것은 막는 민권, 투표권, 언어 권리에 관한 장애물에 경면으로 맞서 이들을 타파하고자 하는 저력을 모르는 노력으로 아시아 태평양계 아메리칸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또한 미교협은 아시아 태평양계 아메리칸을 위한 정책과 법안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들 만드는 데 기여해왔고, 나들 비롯한 수많은 아시아 태평양계 아메리칸이 미교협의 활동으로 인한 혜택의 수혜자이다."

-마이크 혼다 Mike Honda, 미 상원의원

"미교협은 이민 개혁에 대한 활동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그 외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미교협은 배경, 민족,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을 위한 기본적인 인권 옹호활동에 있어 다른 연합체들과 협력하고 있다. 그들은 이민을 위한 양질의 건강보험, 노동자 권리, 합당한 생계 임금보장 등 이민자뿐만 아니라 모두들 위한 캠페인에 함께 하고 있다."

-엘리시오 메디나 Eliseo Medina, Executive Vice - President, 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전국 서비스 노조

"어느 세대든 막론하고 커뮤니티로부터 영감의 근원을 찾기 마련이다. 미교협은 분투명한 미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에게 이러한 영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미교협은 정책 토론에 있어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새로운 지도자 양성을 위한 기회들 제공하고, 국내 이슈에 대한 폭넓은 분석을 제시하며, 코리안 아메리칸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의 발전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문화, 경제, 권의 옹호가 하나되는 장을 제공한다."

-안젤라 오 Angela Oh, Bird Marella Boxer Wolpert Nessim Dooks & Lincenberg

"코리안 아메리칸 및 이민자 커뮤니티의 연가자로서, 나는 미교협 활동의 직접적 수혜자이다. 미교협은 커뮤니티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 제공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결 같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미교협과 가입단체인 민족학교에는 한 달에 한번씩 만나 의료권익을 비롯해 소수민족과 소외계층을 위한 공경하고 평등한 권리에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해 토론하고 해결책을 찾는 거주보권리터 모임이 있다. 연가자들로 구성된 이 모임에 나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나는 민중, 성별, 배경, 나이에 상관없이 변화들 바라는 헌신과 활동들로 우리의 미래를 바꿔나갈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김희복, 커뮤니티 구성원